

내수 부진에 고개 떨군 '휴가철 물가'

세월호 여파로 수학여행·단체여행 줄줄이 취소 교통비·숙박비 하락... 먹을거리 물가 소폭 올라

지난 주 가족과 함께 부여로 휴가를 떠났던 김모(45)씨는 보다 저렴한 비용에 기분좋은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20여만 원이었던 숙박비는 20% 가량 저렴했고, 음식점 요금도 지난해에 비해 오르지 않은 상태였다.

제주도로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회사원 박모(32)씨도 휴가 때 이용할 승용차 임차료(렌트비)가 생각보다 저렴해 휴가비 예산을 조정했다. 예년 같으면 성수기가 예약도 어렵고 바가지 요금 때문에 마음을 상해야 했지만 올해는 다른 것 같았다.

여름철마다 크게 오르던 휴가철 물가가 올해는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휴가철 물가는 여름이 시작되면 상승했지만 올해는 내수 부진이 깊어지면서 고개를 떨궜다.

지난 31일 통계청의 '6월 소비자물가동향' 중 여행비, 숙박비, 항공료 등 여름 휴가철 관련 18개 품목을 골라 분석한 결과 이들 물가는 전월보다 평균 0.7% 하락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로 1.7% 오른 것과 견주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휴가철 물가 하락을 주도한 것은 세월호 사고의 직격탄을 맞은 국내 여행비와 숙박비. 수학여행·단체여행이 줄줄이 취소된 여파로 6월 국내 단체여행비는 전월보다 12.2% 내렸다.

이와 동시에 호텔 숙박료가 2.2% 떨어졌다. 여관 숙박비는 소폭(0.2%) 오르는데 그쳤다.

콘도 이용료는 전월 대비로 변함이 없었

고, 1년 전과 비교해서는 0.7%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

교통수단 요금 역시 약세를 나타냈다. 승용차 렌트비는 지난해 6월만 해도 20%대(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가격 변화가 없다.

국내 항공료는 되레 1.5% 하락했다. 여객선료는 전월과 비교해선 변동이 없고, 1년 전보다는 0.5% 떨어졌다.

위티파크가 포함된 놀이시설은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면서 보통 이용료를 올리지만 이번에는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여름철 먹을거리 물가는 소폭 오르거나 제자리에 머무는데 그쳤다.

치킨(0.0%), 맥주(0.1%), 냉면(0.1%) 가격은 전월 대비 포함세였고 삼계탕이 그나마 0.5% 올랐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는 휴가철을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대대적으로 피서지 물가를 잡았지만, 올해는 이런 모습도 사라졌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여수 지역 숙박업계 관계자는 "세월호 여파로 손님이 들지 않아 큰 일"이라며 "대목 장사인 만큼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오히려 할인해 모셔줘야 할 판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외관련 물가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소비 부진으로 서비스업 물가가 안정적이라 적극적으로 휴가철 물가를 관리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세월호 사고 이후 집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모처럼 내린 삼겹살 가격. 지난 31일 한 대형마트에서 삼겹살 등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올들어 금겹살로 불리며 가격이 치솟았던 삼겹살 등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은 소비감소와 규제역 등의 여파로 1kg당 5000원 이하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고속도휴게소 5곳서 무료 타이어 점검

금호타이어는 휴가철을 맞아 전국 5곳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료로 타이어 안전점검 서비스를 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기간은 1일부터 5일까지로 타이어 공기압 보충 및 마모 상태 점검, 위치교환, 밸런스 점검, 워셔액 보충 등을 해 준다.

여름철 올바른 타이어 관리법도 안내한다. 또 신제품 프리미엄 타이어 '솔루스

TA31' 등 금호타이어 대표 제품을 둘러보고 개인 맞춤형 타이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5곳의 휴게소는 ▲ 화성 휴게소(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 강릉 휴게소(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 가평 휴게소(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 군산 휴게소(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 함안 휴게소(남해안고속도로, 순천방향) 등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2076.12 (-6.49)

금리 2.52%

코스닥 536.32 (-5.49)

환율 1027.90원(+3.60)

상승세 주춤... '숨고르기' 들어간 코스피

나를 연속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2.100선 문턱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코스피가 31일 2,080선을 내주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는 13일째 계속되고 있지만,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된 삼성전자의 중간배당 규모 등이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6.49포인트(0.31%) 내린 2076.12로 마감했다. 지수는 0.86포인트(0.04%) 내린 2,081.75로 시작했다. 장 초반 2090선을 재돌파하기도 했으나 기관의 매도세에 2070대에서 움직임을 이어나갔다.

21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최근 너무 가파르게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코스피가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성격의 매

물도 많이 나온 것"이라며 "2,100선의 미 있는 수치인 만큼 이를 넘는 과정에는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기업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던 시장이 이날 '대장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와 함께 중간배당금을 4년째 같은 액수인 1주당 500원으로 결정하자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날 3.73%나 급락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낙폭은 더 커 4.88%나 내렸다.

코스닥의 낙폭은 코스피보다 더 컸다. 코스닥지수는 5.49포인트(1.01%) 내린 536.32로 마감했다.

지수는 0.18포인트(0.03%) 오른 541.99로 시작했지만 하향 곡선을 그리며 장중 한 때 530선까지 붕괴됐다가 장 막판 일부를 회복했다. /연합뉴스



서진종합건설이 광주시 북구 삼각동에 분양한 '일곡 엘리체 프라임'이 최고 청약 경쟁률 39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다. <서진종합건설 제공>

서진종합건설 '일곡 엘리체 프라임' 초대박

청약경쟁률 최고 39대 1

서진종합건설이 광주시 북구 삼각동에 분양한 '일곡 엘리체 프라임'이 최고 청약 경쟁률 39대 1의 초대박 청약기록하며 여름 분양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31일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이번 분양에서 총 모집 물량 526가구에 7500여명이 지원해 전 평형 1순위 마감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약 15대 1로 집계됐다.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일곡 엘리체 프라임은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날부터 5000여 명이 몰리면서 이미 대박 조짐을

보였고, 청약돌풍으로 이어졌다.

이 단지가 이처럼 관심을 받는 이유는 광주 북구의 명문학교인 인접한 지역인데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족한 생활 인프라,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멀지않아 광주 지하철 2호선이 들어서면 일곡 엘리체 프라임의 미래적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진종합건설 관계자는 "북구 일곡지구에 고급 단지가 부족해 교육적인 여건이 뛰어나 자녀를 둔 대가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 선 것 같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효성, 2분기 영업이익 1948억

1분기보다 78.2% 증가

매출액 11% 늘어 3조1천억

효성은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 1948억원을 올렸다고 지난 30일자로 공시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1093억원)보다 78.2%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지난해 2분기(2145억원)보다는 9.2% 감소했다. 효성의 2분기 매출액은 3조 1086억원으로, 1분기보다 11.3% 늘었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는 7.4%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1699억원을 올려 흑자로 전환했다. 1분기에는 56억원의 적자

를 냈다.

효성은 환율 영향 등으로 작년 동기보다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고기능성 섬유 스판덱스의 판매가 확대됐고 중공업·화학·무역·건설 등 전 부문이 고루 성장해 전년 동기보다는 매출액이 늘었다고 자체 분석했다.

영업이익은 스판덱스 사업이 꾸준히 호조를 보인 가운데 화학부문인 페트병·폴리프로필렌 사업이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한데다 중공업 고수익 제품인 차단기·펌프류의 판매 확대, 타이어 보강제 수익성 개선 등의 영향으로 직전 분기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OPEN 30년 전통 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스퀘어점**

유생촌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원타, 주스)

즉석요리
얼리치않은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셀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_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 서구 352-7788 | 남구 676-7719 |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 목포(건영) 243-7463 | 순천 744-8605 |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